

# “유지경성(有志竟成) 자세로 도정 발전 수레바퀴 역할 다할 것”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전북도의회 황현 의장은 2일 “새해는 전북이 재도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황현 의장은 새해 의정계획과 포부를 일문일답으로 시종일관 진솔하게 이어 나갔다.

## 1 10대 후반기 도의회 출범후 6개월이 지났는데 성과는

대외적으로는 지역의 이익을 대변했고, 의회 내부적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정책의회가 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는 점을 꼽고 싶다.

전북 주요현안문제 해결촉구 차원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쏠치와 서남대의과대학 폐과계획반려촉구, 군산지역 사드배치반대 결의안 등을 채택해 정부부처와 국회에 전달하는 등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노력했다.

또한 5개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의원들의 전문성과 주요 정책에 대한 완성도를 높였다.

올해는 의정자문위를 더 활성화하여 의회와 자문위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의제를 설정해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올바른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도민 토론회도 열겠다.

## 2 올해에 추구해 나갈 의정활동 방향은

도민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존재이유는 도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인 만큼 미래 전북의 가치를 높이는 의회상 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무주 태권도원 일대에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치러지게 되는데 국제적으로 이목이 쏠려 있는 태권도대회를 잘 치르려면 우리 전북의 가치와 위상은 높아지고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태권도대회 성공개최를 통해 2017년 새해가 전북이 재도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또한 지역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열망을 잘 아는 만큼 2023년세계잡버리대회유치, 새만금 국제공항건설 등 중요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 정당을 떠나 협치의 자세로 임하겠다.

## 3 올해 집행부와의 관계설정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새해에도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도정질문과 5분발언 등을 통해 각종 시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하겠다.

아울러 도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도 중요하지만, 도정발전을 위해 협력 상생해야 하는 만큼 도민행복과 도 발전을 위해 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4 도의회가 해외연수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문제 등으로 물의를 빚었는데

10대 후반기 도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애정이 컸기에 실망

감도 크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와 의회 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해외 연수의 경우 현재 상임위원별로 선정하는 대행업체를 총무담당관실에서 공동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정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별 연수를 테마에 따른 의원별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전국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재량사업비는 의원 개인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부정적 시각과 업자와의 유착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의원총회를 열어, 주민숙원사업비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지방의회가 도민의 질책을 받는 행태를 보일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거론된 것이 ‘의원 청렴성’이다. 따라서 의원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연찬회 등도 개최할 구상이다.

떨어진 의회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저부터 철저히 반성하고 달라지겠다.

## 5 전국시도의회장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계신데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문제점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는 여전히 반쪽짜리이다. 지방자치의 본래취지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공동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비부담률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점차 줄어들면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에서 지방정부



“전북 재도약 위해 모든 역량 집중 바른 정책 펴도록 토론하고 논의 중앙에서 권한·지원 확대해야”

와 지방의회에 권한을 좀 더 부여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1세기 국가의 경쟁력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있는 만큼 전국 시도의회장협의회가 지방정책 생산의 산실이자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맡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 6 보직관제 도입에 관한 생각은

광역의회는 생활정치와 현장정치를 병행하는데다 행정 또한 날로 복잡화·전문화되고 있어 의원 혼자서 도정 업무를 파악하고 조사해 집행부를 감시 견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회의원 보좌관처럼 높은 직급의 인력이 아니라라도 적어도 정책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지원은 꼭 필요하다. 의원 1인당 1명씩 보좌 인력을 지원하되 그 채용방식과 업무 등은 조례에 명시해 보좌인력 운용의 투명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

정책 보좌 인력이 지원되면 도의회의 입법기능이 강화되고 집행부를 견제 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 7 지난해 교육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임의편성 했는데

어린이집과 학부모 등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교육청에 대해 교부금감액, 지방채 불상인 등 총 1,400억원의 패널티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막대한 예산 손실을 두고 볼 수는 없었으며, 설사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는 한이 있어도 의회가 도민의 편에 서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

도의회가 편성한 762억원의 누리과정예산이 정상적으로 통과되면 교육부가 밝힌 1,400억원의 예산 손실은 피해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은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도의회가 침해했다고 판단해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명분과 원칙에만 집착해 막대한 예산을 날리는 것은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많다.

## 8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속에 2016년 한해를 보냈다. 우리 38명 도의원들은 2017년 한 해 동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자세로 함께 손잡고 힘 없이 달려가겠다.

도민과 전라북도 공직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

/인재용 기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의정  
 더욱더 가까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군산시의회가 되겠습니다.**

謹賀新年

군산시의회